

# ABL생명 온라인 전용 5대 미니암보험 출시



ABL생명의 온라인채널 보험 브랜드인 ABL인터넷보험은 발생 빈도가 높은 암에 대해 낮은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 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을 8월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각종 수수료를 줄여 커피 한잔 정도의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소액보험(미니보험)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ABL인터넷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은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 담낭·담도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이 보장하는 암질환은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암들이다. 위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간암은 폐나 뼈로 전이가 빠르고,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담낭·담도암은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1종 1년 만기형과 2종 10년 만기형

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1천만원, 나이는 만 19세에서 50세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1년 만기형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10년 만기형은 전기납, 5년납, 일시납 중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무)ABL인터넷나를위한5대미니암보험’은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일시납도 부담 없다. 20세 남성이 2종(10년 만기형)으로 가입할 경우 전기납 월납보험료는 26원, 일시납보험료는 2천710원에 불과하다. 동일 조건으로 40세 여성이면 전기납 월납보험료 637

원, 일시납보험료 6만6천33원으로 5대 암 진단 시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종문 e-비즈니스부장은 “낮은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발생 빈도가 높고 치사율이 높은 암들로 보장을 제공하기에 가성비와 활용도가 높다”며 “MZ세대 등 실속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①

